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 조직적강령 > 에대한부록

디엘로트루다

디엘로트루다
< 조직적강령 > 에대한부록
1926.11.02

<http://www.nestormakhno.info/english/supporg.htm>

kr.theanarchistlibrary.org

1926.11.02

차례

(1) анаки스트운동에서다수와소수의문제	6
(2) 자유소비에트체제	8
(3) анаки스트들이이론적으로대중을추동할것이다.	8
(4) 혁명의방어	9
(5) 언론의자유, 발언의자유, 조직의자유등.	10
(6) анаки스트의원칙“역량에따라일하고필요에따라분배한 다”의적절한해석	11

기대했던대로, < 자유의지주의자적코뮌주의자의조직적강령 > 은 러시아자유지주의운동의여러투사들사이에서생생한흥미를불러일으켰다. 일부는 < 강령 > 의사상전반과그근본적명제들에대하여받아들였지만, 다른이들은그명제들에대하여비판을가하고의혹을제기해왔다.

우리는 < 강령 > 에대한긍정적반응과진실한비판을모두동등하게 환영한다. 총체적인아나키스트의강령을건설하는과정에서, 총체적인자유지주의적조직을건설하는과정에서진실하고진지하며본질적인비판은긍정적이고창조적인진취성만큼이나중요한것이기때문이다.

우리가다시이야기하기로마음먹은아래사항들은진지하고필수적인비판에서비롯된것이다. 우리는이비판을만족스럽게받아들인다. 이비판의작가인마리아이시딘(수년간투쟁해온투사로서우리의운동에서존중받는존재) 은비판문과함께다음과같은편지를보내왔다.

“당연하게도, 조직적강령은모든아나키스트들이논의하도록만들어진것입니다. 이‘강령’에대한최종의견을정하고, 아마도공개적으로그것을말하기전에, 나는충분히설명되지않은특정문제들에대한설명을요청합니다. 이를통하여다른독자들역시‘강령’을충분히적확하게바라볼수있을것이고, 오해에기반한반대를멈출수있을것입니다. 내가동지들에게질문들을던지는이유가바로이것입니다. 이것들에대한명확한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 동지들의답변이 < 강령 > 의총체적인정신을담고있을것이기때문입니다. 검토를위해서라도답변이필요할수있을것입니다.”

마리아동지는편지를마무리하면서, 디엘로트루다의칼럼을둘러싼논란을잠재울수있게되기를바란다는의사도덧붙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마리아동지가강령의특정한핵심부분을명확히하고자하는이유입니다. 이러한접근방식은매우공정합니다. 특정한관점에반대하기위해동의하지않는이와격렬한논쟁을벌이는것은너무쉬운일입니다. 긍정적인대안을제시하지않고단지논쟁만을하는것은더욱쉬운일이지요. 새로운입장을적절하게분석하고, 이해하여기반이잘닥인의견을도출해내는것이야말로어려운일입니다. 그리고질문을던지신마리아동지는이마지막길을택하였습니다.

그리고이것이마리아동지의질문입니다.

“**강령**은공통적인전술과노선에기초하여아나키스트운동의무장세력대부분을규합하는것, 즉 **총동맹**의구성에그중점을두고있습니다. 당신은연방주의자인이상, 분명히” 독자적집단의활동의이념적, 조직적행동” 을담당할 **집행위원회**의존재를염두에두고있을것이라봅니다. 그런기구는모든정당에서찾아볼수있는것이지만, 다수결원칙을받아들여야기

능할수있습니다. 동지들의조직에서각그룹이주어진문제에 대해자유롭게자신의전술을준비하고수립하거나, 자신의 입장을수립할수있을까요? 만약대답이 '그렇다' 라면, 여러분의단결은순전히도덕적인것에지나지않게될것입니다 (그리고이것은아나키즘운동의현상이기도합니다). 반면에, 만약여러분이조직적인통합을추구한다면, 그통합은필연적으로강요될것입니다. 그리고만약여러분이조직내부에서다수결원칙을받아들인다면, 사회를그방식으로재조직하지못할 이유가있을까요? 동지들이연방주의적연결에관한, 대의원의역할에관한, 다수결의원칙에관한개념을명확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소비에트체제’에대해말하자면, 당신은이소비에트들이” 건설적인비국가적활동의첫단계” 가되기위해어떤기능을수행해야한다고보십니까? 그들의역할은무엇이어야합니까? 그들의결정은구속력이있을까요?

“강령은“아나키스트들이이론적으로추동해야한다”고말합니다. 이개념은명확하지않습니다. 이것이단순히새로운질서를구축하려는조직 (노동조합, 지역조직, 협동조합등) 들을자유주의사상에몰들이기위해아나키스트들이최선을다하겠다는말입니까? 아니면아나키스트들이스스로이건설의책임을지겠다는말입니까? 후자의경우, 그상황이” 당에의한지도” 와어떤면에서다른겁니까? 이문제를명확히하는것은매우중요합니다. 특히노동조합에서아나키스트의역할에대해서도같은의문이제기됩니다. ” 조직적인방식으로조합에침투한다” 는것이무슨의미를가지나요? 노동조합운동에종사하는동지들이정책노선을구축하기위해어떤합의를도출해야한다는의미일까요? 아니면아나키스트집행위원회가노동운동의전술, 파업과시위등에대한규칙을규정하고조합에서활동중인무정부주의자들이조합의지도자직위를차지하고자하고, 그지도자로서의권위를이용하여집행위원회의결정을조합원들에게강요한다는것을의미할까요? 노동조합에서활동하는아나키스트조직의활동이” 아나키스트총동맹에의해추동되어야한다” 는강령에서의언급은이부분에대한온갖불안을불러일으킵니다.

“혁명의방어에관한부분에서, 군대는” 경제·사회생활을통제하기위해대중에의해세워져전국적으로존재하는노동자와농민의조직과그조직이대변하는노동자, 농민대중에대한 완전한복종” 의원칙위에세어져야한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개인이수행하는노동외에사회적/정치적권리의기반이될수있는것은없다.”

으로 패배하지는 않는다. 혁명 초기에 그들은 하나의 생각에서로 잡힌다. 모이고, 혁명을 타도하고, 잃어버린 특권을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경우, "각자의 필요에 따라" 혁명적 지역의 생산물을 공유하는 것은 극도로 위험하고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반혁명적 계급들을 부양하는 것이라는 도덕적이고 전술적 어리석음은 제쳐두더라도, 새로운 계급이 즉각 등장할 것이고, 혁명이 모든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하려는 것을 이용하여 노동하지 않고 게을러질 것이다. 이 이중의 위험을 무시할 수는 없다.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저 새로운 계급은 혁명의 장점을 빠르게 편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반혁명적이고 노동적이지 않은 계급을 유용하게 노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든, 어느 정도든, 이 계급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직업을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다. 사회의 생산량에서 그들의 몫에 대한 그들의 권리가, 이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의무를 지지 않는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아나키스트적 원칙이 만들어내는 핵심적 지점이다. 우리의 아나키스트적 원칙은 모든 개인이 자신의 필요에 비례하여 자신의 역량과 능력으로 사회에 복무하고, 복무하지 않는다면, 필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한다.

어린이, 노인, 병자, 노약자들은 예외로 한다. 당연히, 사회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노동의 의무에서 면제해 줄 것이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권리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 대중은 누군가가 자기 필요에 따라 사회에서 원하는 만큼 가져가고, 그 누군가의 기분에 따라 분배하거나 말거나 하는 원칙으로부터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노동 대중은 이 명칭한 원칙의 적용으로부터 너무 오래 고통받아왔고, 그렇기에 노동 대중은 이 부분에 대하여 굽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정의감과 논리 역시 이 원칙에 분노하고 있다.

이 입장은 노동 대중의 자유로운 사회가 공고해져 반혁명적으로 새로운 생산을 사보타주하는 계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소수의 게으름뱅이들만이 있을 때 비로소 바뀔 것이다. 그제야 "역량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아나키스트적 원칙이 사회적으로 온전히 실현될 것이다. 이 원칙에 기반한 사회만이 온전한 자유와 참된 평등을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에도, 사회의 물질적, 정신적 자원에 대한 권리를 누리는 모든 신체 건강한 사람들은, 그 자원의 생산과 관련하여 특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

바쿠닌은, 당대에 이 문제를 분석하면서, 성숙한 아나키스트적 사상과 행동을 보여주었다. "밥을 먹고 싶다면 노동해야 한다. 노동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적선하여 먹여줄 조직이나 마을을 찾지 않는 한, 자유롭게 굶어 죽으면 된다. 이들에게 어떠한 정치적 권리도 주지 않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일할 수 있음에도 일하지 않는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은 스스로의 선택이며, 그들은 타인의 노동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선출된 사람들의 '민권'이라고 불립니다. 그제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경제·사회 생활을 통제하고 군대를 소집할 수 있는 조직은 다름 아닌 국가 권력자임이 분명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강령의 작성자는 이 점에 대해 더 오래 숙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행기적 형태" 일뿐이라면, 강령은 왜 "이행기 개념"을 거부합니까? 그리고 만약 이것이 최종 형태라면, 왜 강령이 아나키스트적 문건일까요?

"강령에서 다룬 문제는 아니지만 노동자들이 의견이 갈리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중 하나를 인용해보겠습니다. 한 지역이 사실 상 무정부 주의자들의 영향 아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의 다른 정당에 대한 태도는 어떨까요? 강령의 저자들은 비무장한 적에 대한 폭력의 가능성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아나키스트적 이상에 따라 언론, 조직 등에 대한 제한 없는 자유를 인정합니까? (몇 년 전 만 해도 이러한 질문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인지하고 있는 몇몇 견해들은, 제가 그 답을 확신하지 못하게 하네요.) 그리고, 광범위하게 말해서, 타인의 결정을 강제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까요? 강령의 저자들은 비록 일시적일 지라도 강제력의 행사에 동의합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디엘로트루다 그룹의 대답이 무엇이든 간에, 저는 강령의 한 가지 부분이, 그들이 공언하는 아나키스트 공산주의와 공공연히 대립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지들은 임금 체계와 착취가 일단 폐지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노동자적 요소들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은 노동 대중의 연합에서 제외됩니다. 그들은 공동 생산물에 대한 그들의 몫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필요에 따른 분배"는 언제나 아나키즘의 기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나키스트들은 그 원칙에서 사회적 연대가 가장 잘 보장된다고 보았습니다. 아나키스트들은 "게으름뱅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게으른 이들을 먹이는 것이 사회적 삶에 거저 되고 해로운 원리도 도입하는 것보다 낫다." 고 대답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동지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일종의 게으름뱅이라는 범주를 만들고, 억압을 통해, 그들을 배고픔으로 죽게 만들고자 합니다. 도덕적인 측면을 떠나서도, 동지들은 그것이 어떻게 귀결될지 생각하지 못합니까? 모든 노동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그들이 일을 하지 않는 근거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념을 탐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주어

진입무를수행하기를거부한다면, 우리는그거절의이유를조사해야할것입니다. 우리는그것이사보타주나반혁명이아닌지살펴보아야할것입니다. 그렇지않다면우리의사회는침보할동이, 강제노동이, ” 노동력동원” 이, 그리고무엇보다, 생명에필수적인생산물은반대파를굶겨죽일수있는권력자들의하사품이될것입니다! 정치적투쟁의무기로서의배급말입니다! 동지가러시아에서본광경이이러한비열한협잡이아닙니까? 그리고저는그것이단순히혁명에위협적이라고, 사회적연대에대한노골적인배반이위험한적을만들어낼뿐이라고말하는것이아닙니다. 내가말하는것은그러한사회조직이아나키스트적개념에중심을두고있는지의문제입니다. 만약이점에대해양보를하게된다면, 결국그사회는다른모든아나키스트적발상들역시폐기하게될것입니다. 그문제에대한여러분의접근은비국가적사회조직을불가능하게만들기때문입니다. 나는 < 강령 > 에대하여기고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이모든회색영역이해명될때까지미루려합니다.“

그리고 < 조직적강령 > 은위에인용한질문에대한답변을하고자한다. 특히다음의문제들에대하여주로다루게될것이다.

- 아나키스트운동에서다수와소수의문제
 - 자유소비에트체제의구조와필수적기능의문제
 - 대중에대한이데올로기적추동의문제
 - 혁명의방위의문제
 - 언론과발언의자유문제
 - “필요에따른분배”라는아나키스트적원칙에따른건설의문제
- 이문제들을하나하나다루어보자.

(1) 아나키스트운동에서다수와소수의문제

마리아동지는이문제를우리의 **총동맹 집행위원회**에대한생각과연동시켜접근하고자한다. 만약 **총동맹 집행위원회**가행정적기능외에“개별조직의활동을이론적이고조직적인관점에서추동”하는기능또한가지고있다면, 이추동은억압적이어야하는것일까? 만약그렇다면, 동맹에가맹한조직들은스스로의전술을준비하고입장을결정할수있을까? 그렇지않으면, 동맹의다수가결정한전술과입장에따라야하는가?

우선우리가볼때, 총동맹집행위원회는중앙집중적정당의집행위원회와달리강압적인성격을지닌권력기구가아닐수없다. 아나키스트총동맹의집행위원회는동맹에서일반적인성격의기능을수행하는기구이다.

킨부대에의해포위되어있었다. 그리고야코프슬라시초프가이끄는데니킨군부대가북방크레멘추그지역으로부터예카테리노슬라프를향해진군을시작했다.

당시에예카테리노슬라프에는, 언론의자유가있었기에, 마흐노우슈치나의기관지푸츠크스보보디 (“자유를향하여”), 사회혁명당우파의기관지나로도플라스티예 (“인민의힘”), 우크라이나사회혁명당좌파의기관지보로트바 (“투쟁”), 그리고볼셰비키의기관지즈베즈다 (“별”) 등과같은일간지들이발간되고있었다. 데니킨군의영적지도자였던카데츠만이신문을발행하지못했다. 자. 이제카데츠가예카테리노슬라프에서자체적으로기관지를펴내고싶어했다고해보자. 이것은데니킨의작전행동에도움이되었을것임은부정할수없다. 혁명적노동자들과반란군들이카데츠에게언론의자유를허용해야했는가? 그언론이군사적역할을할것이자명한데도? 우리는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

내전상황에서는이런사례가여러번발생할수있다. 이런경우노동자와농민들은언론과발언의자유와포괄적원칙이아니라, 현재벌어지고있는군사투쟁과관련해적의대변자들이말게될역할을보아야할것이다.

그러나일반적으로말해서, (내전과같은) 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 승리한노동자들은은좌파적견해와우파적견해를막론한언론과발언의자유를똑같이제공해야할것이다. 이러한자유는자유노동대중사회의자부심과기쁨이될것이다.

아나키스트들은계급적적들과의싸움에서혁명적인폭력을지지한다. 아나키스트들은노동대중이그것을사용할것을촉구한다. 그러나그들은단순순간이라도권력을휘두르지않을것이며, 그들의결정을무력으로대중들에게강요하지도않을것이다. 이러한연관성에서아나키스트들의방법은선전, 논쟁, 그리고말과서면으로이루어지는설득이될것이다.

(6) 아나키스트의원칙“역량에따라일하고필요에따라분배한다”의적절한해석

의원칙이아나키즘적코뮌주의의초석임에는질문할여지가없다. 이것만큼아나키즘적코뮌주의의이상에적합한경제적, 사회적, 법적언명은없다. 강령은또한다음과같이말한다. ” 사회혁명은현존하는사회질서전체를재건할것이다. 그리고그로인해모든인민들의기본적욕구가제공될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아나키스트사회의문제에대한광범위한원칙의선언일뿐이다. 그것은사회혁명초기의실제적인요구와구별되어야한다. 파리고뮌과러시아혁명의경험에서보듯, 비노동계급은패배하지만결정적

군사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군대 내부의 군사체가 이를 다루어야 하며, 노동자와 농민의지도 조직에게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군대는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까? 노동대중은 단일체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양한 경제 단체로 대표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조직들의 연방체에 군대는 종속될 것이다. 이 연방체의 성격과 사회적 기능은 이 문건의 시작 부분에 기술되어 있다.

노동대중의 혁명군이라는 개념을 수용할지 말지는 각각의 판단이다. 하지만 만약 군대가 구성된다면, 그 군대는 노동자와 농민의 조직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수용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다.

(5) 언론의 자유, 발언의 자유, 조직의 자유 등.

승리한 프롤레타리아는 이제 패배한 숙적들과 과업자들의 언론의 자유도, 발언의 자유도 빼앗아서는 안 된다. 하물며 승리한 프롤레타리아대오 내의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과 아나키스트 조직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노동대중에게 발언과 언론의 자유는 필수적이다. 이는 그들이 건설적 인 경제적/사회적 노력에 소요되는 과업들을 더 잘 인지하도록 하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유를 통해 노동대중은 적들의 핵심적 성격을, 주장을, 계획과 의도를 알아낼 수 있다.

자본주의 언론이, 기회주의적 사회주의자의 언론이 혁명적 노동대중을 오도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혁명적 노동대중은 거짓말을 하는 언론을 해독하고 폭로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발언의 자유는 자본가나 국가 사회주의자들처럼 더러운 행위를 통해 살아남는 사람들을 겁주어 거대한 노동대중의 눈으로부터 숨게 할 것이다. 노동대중에게 언론의 자유는 엄청난 이득이 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모든 것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스스로 사물을 판단하게 하며, 그들의 이해를 더 깊게 하고, 그들의 행동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다.

언론과 발언의 자유를 특정인이 독점하거나, 특정 정당의 도그마에 정한 것만 대하여 로 그 자유를 한정하는 것은 그 독점자와 언론에 대한 신뢰를 망칠 것이다. 언론의 자유가 억압된다면, 그것은 진실을 감추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볼셰비키가 놀라운 방식으로 보여 주었다. 그들의 언론은 총검 아래에서 신뢰를 얻고, 필요에 따라 사전에 검토했다. 다른 언론은 없다.

그러나, 언론, 혹은 언론의 남용이 혁명적 유용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러시아 혁명 시대의 한 가지 사건을 보자.

1919년 11월, 예카테리노슬라프(현재의 드니프로)는 마흐노우슈치나 반란군의 통제 하에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예카테리노슬라프는 드니프르 강 좌측의 아무르와 니즈네 드네프로프스크를 점령하고 있던 데니

”집행위원회” 대신에, ”동맹 최고 사무국”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라는 이름이 그 행정 기능과 자주성을 더 잘 드러내는 이름이라 하겠다. 집행위원회는 어떤 식으로든 고립된 집단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이론적, 조직적 의미에서 그들의 활동을 추동할 수 있을 것이다. 동맹 내부에는 다양한 전술적 문제들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는 조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언제나 특정 조직들에게는 이 대를 기적이나 조직적인 보조가 필요하다. 집행위원회가 이러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집행위원회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동맹이 채택한 전술적/조직적 노선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나 다른 단체들이 자신들의 전술 노선을 추구하겠다는 뜻을 나타낸다면, 집행위원회나 동맹이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동맹의 전술적, 정책적 노선은 다수에 의해 결정되어 내려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그룹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운영되어 동맹 내부에 다수 개의 노선이 있을 것인가?

원칙적으로 우리는 동맹이 하나의 전술적, 정치적 노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맹은 무정부주의 운동의 방랑과 조직 부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으며, 서로 마찰을 일으키는 여러 전술적 노선 대신에 모든 자유의 지주의 세력이 공통의 방향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총체적 노선을 두고 고안되었다. 그것이 없다면 연합은 주요한 존재의 이유 하나를 잃게 될 것이다.

다만 몇몇 문제에 대한 동맹 구성원의 의견이 갈라져 다수파와 소수파의 시각 차이가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모든 조직과 모든 당사자의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보통 그러한 상황은 해결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동맹의 단결을 위해서, 그러한 경우에, 소수의견이 다수에 게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소수자와 다수자 사이의 대수롭지 않은 의견 차이의 경우에는 쉽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수파가 자신의 관점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면, 동맹 내에서 다수의 견해와 전술, 그리고 소수의 견해와 전술이라는 두 가지 다른 견해와 전술을 가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 동맹은 각 입장들을 총체적으로 숙의하여야 할 것이다. 숙의를 거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이 실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두 가지의 견해의 공존은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끝으로 이들을 분리하는 전술적·정치적 사안에 대해 다수 세력과 소수 세력 간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명될 경우, 소수 세력이 이탈해 별도의 조직을 찾기 위한 분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특정의 제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가능한 세 개의 결과들이다. 모든 경우에서, 문제는 단순히 동맹의 행정 기구 일뿐인 집행위원회가 아니라, 동맹이라는 총체가, 동맹의 총회나 대의원 대회 가 이를 결정할 것이다.

(2) 자유소비에트체제

우리는현재의 (볼셰비키적) 소비에트구성에반대한다. 이소비에트는국가의다른형태를의미할뿐이다. 노동자농민대표자의소비에트는정당이운영하는국가의정치조직이되었다. 우리는이러한체제의대안으로노동자농민의생산/소비조직의소비에트를제안한다. 이것이“소비에트와공장위원회자유로운체제”라는구호의의미이다. 우리는이체제가그모든부문과기능이노동대중의생산/소비조직의손으로집중되어, 전체노동대중의필요를충족할수있도록기능하는경제적/사회적협약이라바라본다. 이러한조직들과소비에트들의연방은국가와자본주의체제를철폐할것이다. 그리고자유소비에트체제의핵심이될것이다. 분명히말하지만, 이러한체제가아나키스트코뮌의온전한이상이지는않을것이다. 하지만이것은아나키스트코뮌의최초의집행사태가될것이고, 노동대중의자유롭고비국가적인창조성의시대를열것이다.

우리는노동자농민의조직, 혹은공장위원회의소비에트가경제적/사회적삶의다양한영역에서내리는결정들이, 폭력이나법령을통해서가아니라, 노동대중과의공통의이해를통해집행될것이라본다. 하지만이결정은그들을선출하고지지하는이들에게구속력을가져야할것이다.

(3) 아나키스트들이이론적으로대중을추동할것이다.

대중의혁명적요소와그들의혁명운동을추동한다는것은결코일부아나키스트들이새로운사회를스스로건설하고자하는의도로받아들여져서는안되고, 그렇게될수도없다. 이건설의과업은전체노동사회의손으로가아니면이루어질수없다. 이과업은그들에게만주어지는것이며, 이권리를빼앗으려는모든시도는반-아나키스트적이라여겨져야한다. 이데올로기적조타의문제는사회주의적건설의문제가아니라혁명적인투쟁을염두에둔이론적, 정치적영향력을가지는문제이다. 대중적혁명투쟁의성격과방침에관심을가지 않는한, 우리는혁명가도투사도될수없다. 그리고그투쟁의성격과방침은객관적인요인뿐만아니라주관적인요인, 즉다양한정치집단의영향력에의해서도결정된다. 그렇기에우리는혁명적투쟁에서아나키스트의이데올로기적영향을극대화하기위해모든힘을다해야한다.

오늘의” 전쟁과혁명의시대” 는놀라운급진성으로주요한딜레마를제기한다. 혁명적인사건들은 (국가사회주의도포함하여) 국가주의, 혹은반국가주의 (아나키즘) 적사상의추동아래서발전할것이다. 그리고,

우리는국가주의가혁명을패배시키고대중을새로운노예로만들것이라는흔들리지않는확신을가지고있다. 그렇기에우리의과업은그혁명이무정부주의적경향에의해형성되도록가능한모든것을해야한다는것은당연한일이다. 이러한조건에서, 우리의오래된운영방식, 즉, 작고흩어진집단에의존하는원시적인방식으로는과업을수행하지못할뿐만아니라오히려그수행을방해할것이다. 그렇기에우리는새로운방법론을도입해야한다. 우리는아나키즘의이론적인영향이사건의진행에미치도록조직해야한다. 서로다른사소한행동을통해간헐적으로영향력을발휘하는것이아니라, 그것은강력하고지속적인영향력을만들어야한다. 우리는, 아나키즘최고의투사들이이론적으로나실제적으로나강력하고적극적이며이론과전술면에서근거가있는조직체, 즉아나키스트총동맹으로조직하지않는한, 그것은거의불가능할것이라고본다. 혁명적조합주의를이론적인측면에서추동하는시도가이루어져야하는것도같은의미이다. 조직적인방식으로노동조합에침투한다는것은노동조합내에서활동하는모든아나키스트가서로일치하는특정한이론, 계획된작업의전달자가되는것을의미한다. 아나키스트총동맹은노동운동전반이나, 파업이나시위를위한전술과계획을수립할수있을것이다. 하지만총동맹은노동조합내에서그노동계급의혁명적전술을다양한사건속에서퍼뜨려야한다. 하지만, 그사상을퍼뜨리기위해서는아나키스트들이각자와는물론이고, 그들이소속되어있는상급조직과분명한합의를이루어야한다. 그리고그조직의이름으로이데올로기적이고이론적인작업을수행하여야한다. 노동조합내에서조직적인방식으로자유주의적노력을수행하고, 아나키스트적노력이일치하도록하는것은권위주의적절차와는아무런관계가없다.

(4) 혁명의방어

혁명의방어에대한강령의테제에대한마리아동지의반대는, 다른그어떤것보다더오해에바탕을두고있다.

강령은내전이라는조건에서, 노동대중이그들의혁명군을만드는것의필요성과필연성을강조한다. 또한이군대가노동자와농민의생산/소비조직의전반적인방향에종속되어야할것이라고주장한다.

군대를이조직들에종속시키는것은선출된시민권력과같은사상을전혀의미하지않는다. 절대로. 군대는, 그정신과상징성면에서가장혁명적이고가장인기있는군대일지라도, 자체주도적으로존재할수도, 작전을수행할수도없다. 군대는노동대중의권리와혁명적위치를방어하기위한기관이어야한다. 바로그목적때문에, 군대는노동대중에게정치적측면에있어전적으로종속되어야한다. 우리는정치적이라강조하는것은,